



식량과 비료

2021년
10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경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남부발전·삼성물산·남해화학 해외수소 도입 실무위원회 발족

- 수소 생산·도입, 암모니아 저장·개질, 혼소·활용 3개 분과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에서 삼성물산, 남해화학과 해외 청정수소 도입·활용사업을 위한 실무 착수 회의를 열고 사업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남부발전 등 3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암모니아를 수소 사업에 활용하는 해외 암모니아 도입 사업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실무 착수 회의는 해외 암모니아 도입, 실증사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실행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3사는 해외 수소 생산·도입, 암모니아 국내 저장·개질(改質·Reforming), 혼소(혼합연소)·활용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사업개발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 2021. 10. 6.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전국 밭작물 농가들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중인 팜한농, ‘한번에아리커’

- 질산태 질소와 완효성 비료로 고품질 작물 생산 및 노동력·영농비 절감



팜한농 ‘한번에아리커’ 비료를 사용해 본 농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월동작물인 마늘·양파 농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번에아리커’는 ‘질산태 질소’가 함유된 ‘완효성 비료’로 원예작물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밭작물이 선호하는 ‘질산태 질소’가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꾸준히 용출되는 ‘완효성 비료’가 생육 후기까지 양분을 공급해 웃거름 시비 횟수를 줄여준다. 또한 황산칼리, 유허, 칼슘 등이 들어있어 작물의 품질 향상 효과도 크다.

전남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배석훈 농가는 “‘한번에아리커’를 사용했더니 웃거름 시비 횟수가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 노동력과 인건비가 절감됐다. 또한 작황이 좋고 구 상태가 고른 것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의 조석곤 양파 농가도 ‘한번에아리커’를 사용해 큰 효과를 경험했다. “기존에는 추비를 네 차례 줬으나 ‘한번에아리커’를 사용하니 추비로 액비만 한 차례 줬는데도 수확량이 좋게 나왔고,

노동력과 인건비도 절감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의령에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전춘원 농가는 “이번에 ‘한번에아리커’로 상품 양파를 평당 두 망 이상 수확했고, 마늘 수확량도 늘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적극 추천했다.

충남 서산·논산·태안의 마늘 및 양파 재배농가 사이에서도 ‘한번에아리커’를 사용한 곳은 추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물 생육이 좋아 바쁜 봄에 농사짓기가 편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팜한농 관계자는 “‘한번에아리커’는 빠르게 흡수되는 질산태 질소로 정식 후 초기 생육을 돕고, 꾸준히 용출되는 완효성 비료로 웃거름을 줄여줘 노동력과 영농비를 절감시켜주는 비료”라며, “웃거름을 자주 주는 작물과 멀칭재배 및 저온기 정식 작물에 추천한다”고 말했다.

※ 2021. 10. 19.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고품질 마늘·양파 생산 기능성 비료로 가능

- 풍농, 기능·완효성 비료 ‘명품유비롱’ 선보여



고품질 마늘과 양파 생산을 돕는 비료가 시장에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업현장에 다양한 비료를 선보이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풍농이 기능성 신제품 엔피코 명품유비롱(18-9-8,고토1,붕소0.1,유기물10,비효증진제함유)을 소개했다.

명품유비롱은 기능성, 완효성비료로 양분공급 기능을 강화해 양분흡수효율 20% 이상, 완효적 양분흡수 효과의 기능성, 완효성 시비절감형 비료다.

명품유비롱 비료는 기능성 비료효과증진제, 지효성 유기물, 완효성 및 필수양분을 고루 함유해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의 양분흡수효율 20% 향상으로 초기 뿌리활착 및 생육이 왕성하고 완효성, 유기물함유로 비효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풍농 관계자는 “명품유비롱은 전국 1400여 농가 실증시험결과 농업인 95% 비료 효과 만족, 공인 기관 시험결과 마늘, 양파 수량 6~8% 증수, 구 중 및 크기 5~8% 증대로 비료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제품”이라며 “명품유비롱 50kg/10a으로 전층시비 되도록 로터리 사용 시 시비효율이 뛰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1. 9. 27.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분석, 전파
- 농업전문지 당면현안 취재 협조(수시)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원자재가격 상승곡선...비료업계 경영난 심화

- 중국 각종 수출규제
- 인도네시아 공장가동 중단
- 요소가격 큰 폭으로 올라
- 일주일 사이 15.6% ↑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로 올해 내내 어려움을 겪어 온 비료업계가 지속되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내년에는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비료공급 중단 등으로 실사용자인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중국의 비료 원료 수출 규제와 유럽산 천연가스 가격 급등, 캐나다 광산 조업 중단 등의 여파로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요소의 경우 최대 생산국이자 국제 공급량의 44%를 담당하는 중국의 각종 규제가 국제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탄소 배출과 고에너지 소비를 통제하는 이중 규제와 내수 사용량 비축에 따른 수출 규제가 이뤄져 요소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가동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더 올랐다. 요소 가격은 10월 7일 기준, 톤 당 659달러(미화)로 일주일 만에 15.6%가 상승했으며, 2020년 연말 대비 140.5%의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다.

- 암모니아도 높은값
- 톤당 633달러 거래
- 자칫 비료공급 중단 등 우려
- 정부 차원 대응 서둘러야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340% 급등하면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 가격도 톤당 633달러로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있다. 염화칼륨 또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캐나다 광산의 조업 중단과 벨라루스 수출 제재 등으로 공급물량이 줄어 지난해 말 톤당 235달러 었던 가격이 현재 151.1%가 오른 59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의 거듭되는 상승 탓에, 지난 8월 농협이 단행한 계통 공급용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인상 조치도 비료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농협이 계통공급 가격을 소폭 인상했지만 올해 말 이뤄지는 내년분 계통공급 계약에서 실질적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다. 농협 입장에선 농가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농민단체 반발도 부담이다. 올해 8월 가격 조정 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농민단체 항의가 있었다.

원자재 수급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비료 업계 특성상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올해 이미 일부 비종에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약 비료공급 문제가 확대되면 적기에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 되는 것을 감안해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최근엔 탄소 저감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정책에서 무기질비료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며 “무기질비료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가도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업계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WTO 체제 이후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허용보조에서 제외됐고, 정책적으로도 탄소 중립, 친환경농업 확대 측면에서 무기질비료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업계 상황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21. 10. 13.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 꺾이지 않아

- 천연가스 가격 급등, 중국 비료수출 제한 등 영향
- 요소 76%, 염화칼륨 145%, 인산암모늄 74% 급등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농업생산과 식량안보로 자국내 비료 우선공급 촉구,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석탄사용 제한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유럽에서 천연가스 급등으로 비료공장 가동 중단, 인도의 입찰물량 증가 등 영향에 따른 수급 악화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요소는 중국의 내수가격 안정과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석탄사용 제한 등 요소물량 축소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으로 영국 대형비료업체가 조업을 중단했으며, 인도가 4분기 요소물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입찰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요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요소가격은 지난달 23일 기준 지난해 말 274\$/톤에서 482\$/톤으로 76% 폭등세를 보였고, 지난해 대비 8.8% 급등했다.

염화칼륨은 캐나다 광산 침수로 인한 조업 축소 및 벨라루스 수출제재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 CFR 760\$/톤, 호주 615\$/톤, 태국·베트남 625\$/톤으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 지난 연말 235\$/톤에서

9월 23일 575\$/톤으로 145%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산암모늄(DAP)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암모니아 가격의 상승세 지속과 중국 DAP 주산지인 운남성의 생산량 제한 지속과 선박운송 차질 등이 지속되면서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 365\$/톤에서 9월 23일 현재 634\$/톤으로 74% 급등, 가격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영농 안정을 위해 엄청난 영업적자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산업체들은 시설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절감에도 한계에 다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대안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 2021. 10. 1.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중국 해관총서, 화학비료 수출검역 강화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가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상품 검역을 하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공식 실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2917만 톤의 비료를 수출했다.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각각 황산암모늄(100만2300톤), 요소(58만20톤), 디암모늄포스페이트(49만1400톤), 인산이수소암모늄(14만8400톤), 질소 복합비료(12만3800톤)다.

※ 2021. 10. 21. 한국무역신문 기사내용 인용

□ 中, 비료수출 사실상 제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에 추가 요건을 부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비료를 실은 화물 컨테이너들이 발송 준비를 마쳤음에도 지방 정부의 점점 강화로 발이 묶여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비료를 수출하려면 신설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 판매용이 아니면 사실상 수출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점점 강화는 지난 15일 세관에서 관련 조치가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도 최근 안정적인 비료 공급과 가격은 농업 생산과 식량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에서 이미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비료의 최대 구매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있다”고 말했다.

※ 2021. 10. 20. 아시아경제 기사내용 인용

□ 글로벌 에너지 부족, 비료·식량 값까지 올린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이 비료 생산 가격 상승을 불러 전 세계 식량 가격까지 뛰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8월에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후 9월에 더 상승하는 새로운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FAO 식품 가격 지수는 2021년 9월 130.0포인트로 전월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했다. 새로운 상승의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벌 식량 가격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국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비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식량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지만 하락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업체는 천연가스 가격비용이 비료 생산원가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에 가장 민감하다.

아시아 LNG 가격의 주요 지표인 JKM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일본 등에서도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임으로써 천연가스 가격 상승 추세는 단기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급증하는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북미 비료 가격을 측정하는 지수인 녹색시장 북미 비료 가격지수(GMNAFPI)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이는 농부들의 재배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2021년 글로벌 식료품 가격 지수는 6월과 7월에 잠시 수정된 후 9월에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올해 글로벌 곡물 및 석유 가격 상승이 급증하면서 상반기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및 석유 수출 정책이 강화되었다. 곡물과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출 제한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 벨라루스는 밀, 혼합 밀(밀과 호밀 혼합물),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메밀, 쌀, 작은 호밀(밀과 호밀의 하이브리드), 유채 및 기타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글로벌 곡물 및 석유 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식량과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세계 일부 지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유엔 고위급 행사에서 기근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례 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말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 2021. 10. 14. 글로벌이코노믹 기사내용 인용

□ 마켓워치 "천연가스 급등에 비료 가격 폭등"...'애그플레이션' 우려

유럽의 에너지 위기의 불길은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애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진단됐다. 천연가스 상승이 비료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다.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8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라보뱅크의 사무엘 테일러는 "다양한 영양소 가격이 상당히 오를 많은 이유

가 발생하는 등 퍼펙트 스톱 같은 상황이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천연가스가 옥수수과 밀을 포함한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는 질소 기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공정의 핵심 성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테일러에 따르면 천연 가스는 질소 생산 운영 비용의 75~90%를 차지한다.

영국의 천연가스 선물(GWM00)은 올해 들어 340% 이상 급등해 올해 초 영국 및 기타 지역의 비료 공장 폐쇄를 촉발했다. 비료의 핵심 성분인 질소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만에서 인도되는 전월물 요소(urea) 선물은 지난 7일 톤당 680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253.50달러에서 168.2%, 12개월 전보다는 3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농산물 생산자들이 가을에 살포할 준비를 함에 따라 미국 옥수수 벨트의 무수 암모니아(Anhydrous ammonia) 가격도 급등했다. 다른 비료들도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급등했다. 인산이암모늄(DAP) 선물은 톤당 682.50에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74.3%, 지난 12개월동안 91.2% 상승했다. 블룸버그의 그린마켓 주간 북미 비료 가격 지수는 10월 1일 923.08로 2008년 8월 930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비료가격 급등에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보다 더 많은 이유가 포진한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에는 많은 공급 관련 요인이 비료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데 한몫했다. 8월 말에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선적을 방해하고 미국 걸프 연안 근처의 암모니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악천후가 파생한 문제다.

분석가들은 벨로루시에 대한 제재로 농작물 비료의 핵심 성분인 칼륨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최대 비료 생산업체 중 일부는 7월에 가격 상승 속에서 충분한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인산염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가격 인상을 주도했던 수요 중심의 가격 상승과 구별되는 공급 중심의 랠리가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21. 10. 9. 연합뉴스포맷스 기사내용 인용

□ 사상 최고가 짝은 천연가스...비료·농산물값도 고공행진

○ 에너지궤 인플레이 우려 확산, 유럽서 반년새 6배 넘게 올라

○ 비료값 오르면 식량물가도 급등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농산물 재배의 필수품인 비료 가격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의 11월물 가격은 장중 전날보다 23% 상승한 MWh당 117.5유로를 기록했다. 6개월 전(18유로 수준)에 비해 6배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철,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영국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썸(therm·열량 단위)당 3파운드를 돌파했다. 영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사이 세 배 급등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영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원유 가격으로 환산하면 배럴당 200달러 이상”이라며 “현재 원유

가격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천연가스 도매가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영국 에너지업체는 최근 두 달여간 10곳에 이른다. 영국 에너지업체는 도매가와 상관없이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 내에서 소비자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FT에 따르면 1년 동안 영국 일반 가정에 gas와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은 가격 상한선(1277파운드)을 웃도는 1800파운드 이상으로 치솟았다.

비료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비료의 원재료인 암모니아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기 때문이다. 운송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가 치솟는 비료 값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 탓에 유럽에서만 암모니아 생산량이 4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작물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미국에선 옥수수 농사에 투입되는 비료 가격이 전체 비용 가운데 최대 44%를 차지한다. 러시아 투자은행 VTB캐피탈의 엘레나 사흐노바 애널리스트는 “비료 가격은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2021. 10. 6. 한국경제 기사내용 인용

□ [국감] 창립 60주년, 아직도 ‘농협답지 못한 농협’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및 금융자회사들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15일 열렸다. 업무현황 보고에서부터 ‘창립 60주년’을 강조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의원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본격적인 발언에선 60주년이 되도록 여전히 ‘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농협의 현주소를 저마다 소리높여 질타했다.

- 유통문제, 농협이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유일하게 농민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농협 경제지주의 비료 계통구매 사업에 대해 “비료업체들이 농협에 원가대비 50~60% 가격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농협이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의 97%를 점유해 가격을 후려 치고 있다”며 “비료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회사가 돌아가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가 입장에서 농업 생산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비료수급도 중요하니 앞으로 업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2021. 10. 17. 한국농정 기사내용 인용

□ [Issue+] 2021 국정감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도시 농·축협 무임승차, 사업구조개편 성과 미비, 무기질 비료 구매가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축산 부문에선 축산 지속가능성, 축협

경쟁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 비료 구매가 결정 비판

농협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료 계통구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 무기질 비료 시장의 97%가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하고 있어 무기질 비료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농협이 취급하는 무기질 비료 대표 3종의 원가, 구매가, 판매가 자료를 보면 원가보다 무려 10~25%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가 정해지고 있다”며 “농협이 입찰가의 절대적 하한선을 정해 원가 이하로 구매하는 바람에 비료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결국 농협이 원가를 후려쳐서 구매가를 정한 건데, 이는 무기질 비료 시장에서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철훈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인들에게 최저가로 비료를 공급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비료 수급안정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업체들의 어려움도 감안해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21. 10. 19.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 절반에 구매 "공정거래법 위반"

-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지적
- 농협 계통구매, 시장 97% 점유, 무기질비료업체 팔 곳 없어
- 최근 5년 적자 2260억 ‘눈덩이’
- 농가 최저가 보장 이유라지만, 농협, 수수료 등 10% 붙여 팔아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가 사업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무기질비료를 공급받아왔기 때문이다.

농협은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비료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와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농협 계통구매를 제외하면 사실상 갈 곳이 없다. 국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질비료는 국내 시장의 97%를 점유한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해 유통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의 무기질비료 구매액이 연간 3500억 원대다.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계약은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구매 예정량을 채울 때까지 차례로 낙찰자를 지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입찰과정부터 업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갑) 의원에 따르면 업체가 영업 비밀인 제조원가를 스스로 공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원가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즉, 농협은 무기질비료 경쟁입찰에 앞서 비료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다음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 이를 기초로 구매예정가를 결정하고 있다. 농협은 이렇게 해서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 보다 10~25% 낮은 가격에 무기질비료 구매가 가능했다. 비료업체 기준으로는 자체 산정 원가의 50~60%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러한 계통구매 계약 방식으로 인해 비료업체들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누적 적자가 2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급등한 국제원자재가격과 상관없이 애초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가격까지 상승하자 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몰리게 됐다.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의원은 “업체 영업 기밀 자료를 받아 구매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업체에는 무조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무기질비료를 납품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농가에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협은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익 등 최대 10% 이상 이익을 붙여 농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비료업체가 계속되는 적자에 무기질비료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제때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까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농협 측은 다만, “비료업체와 협의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021. 10. 22.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주철현 의원 “농협, 공정거래법위반 소지...시정해야”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 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 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

계통구매는 농협이 책정한 비료종류별 구매 예정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저 단가 입찰 자료부터 구매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입찰자를 낙찰 지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원자재대금 등 영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후, 전문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자체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매 예정가를 정한다. 그런데 실제 구매가는 농협이 자체 산정한 생산원가의 10~25% 낮은 가격이고, 생산업체가 자체 산정한 원가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원가이하 계통구매로, 비료제조업체들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누적 적자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국내 무기질 비료 생산량 2위 업체는 지난 2015년 250여 명에 달했던 비료사업부 인력을 올해 190명으로 감원하는 등 국내 비료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비료업체가 적자를 감수하고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동안, 농협은 저가 구매가에 수수료와 장려금, 지역농협 영업이익 등 최대 10%를 더해 농민들에게 무기질비료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는 구매계약서 제9조(대금 지급)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가격의 1.2%를 예약구매 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고 있기까지 하다.

주철현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비료제조업체와 협의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 2021. 10. 18. 시사코리아 기사내용 인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유예·업계 숨통

○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주체별 2~4년 연장 입법예고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사업장 운영주체별로 2~4년 연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이 2~4년 유예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운영주체별로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 하도록 했던 것에서 가축분뇨 처리 대란을 우려한 축산단체 건의를 수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유예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배출 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 정지, 마지막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후 문제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설정한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다. 암모니아 배출 기준은 30ppm 이하로, 국내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여건상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 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 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시설이 없는 현장 상황을 감안 것으로, 환경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충묵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환경부 신규 연구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3년 동안 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숙유기질비료 업계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공동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 2021. 9. 28.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전문가의 눈] 양분관리, 비료사용 감축만이 답인가



윤영만 (국립환경대 식물생명 환경과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안에 농경지로 투입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 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분수지 지표란 농업생산에 사용된 비료 성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비료 성분의 양이다.

이처럼 양분수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현장에서 양분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를 통해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비료의 하천 유입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 비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환경 오염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농경지에서의 양분 과다 문제를 농업이나 농민들의 문제로만 봐선 안된다. 우리나라가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집약적인 고투입 농업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등 국가 산업을 성장시킬 견인차 역할을 우리 농촌현장에서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되는 지점이다.

현재 농업환경의 오염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약과 같이 과거농업에 사용하지 않던 이물질에 의한 오염문제다. 농약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사용량과 잔류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질소·인과 같이 과거부터 사용해오고 있으나 과도한 사용으로 농업환경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다. 질소·인과 같은 비료 성분은 농약과 달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완효성 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비료 이용효율 개선 ▲토양 속 유기물의 증진을 통한 비료 성분 유출 저감 등 농업환경 내에서 비료 성분의 순환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에는 단순히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 비료 성분의 오염 특성을 고려해 양분 사용 저감의 주체인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경지 양분 투입 저감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감소해 농업생산성 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경지 양분 투입 저감에 따른 환경적 편익효과와 작물생산성 감소 영향을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마련도 필요하다. 양분관리 제도 도입에서 과학 기술 역할을 기대해본다.

※ 2021. 9. 27.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축산부문 탄소배출량 2050년까지 37.7% 줄여야

○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470만t → 1540만t 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나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농축수산부문 탄소배출량은 2018년 2470만t 대비 37.7% 줄어든 1540만t이 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초안은 온실가스 핵심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해 205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6억8630만t) 대비 96.3~100% 줄어든 0~2540만t으로 제시했는데, 최종안은 2050년까지 반드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농업계가 주목한 농축산부문에선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탄소배출량 목표가 초안에선 시나리오별로 2018년보다 31.2~37.7% 감축한 1540만~1710만t이었는데, 최종안은 A·B안 모두 1540만t으로 정해졌다는 점 정도만 차이가 있다.

감축 방법도 초안 그대로다.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농기계와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기·수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농법 확대 등으로 영농법을 개선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고, 벼농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논물 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은 확대한다.

축산분야에선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농업계에서는 초안이 공개된 뒤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농업과 먹거리 관련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시나리오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해당 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1. 10. 20.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단독] 10년 새 '축구장 20만개' 면적 농지 사라졌다... 식량 안보 비상

최근 10년간 상업시설이나 주택 등 비농지로 전환된 농지 면적이 축구장 20만 개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급격한 경지 면적 감소는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지 전용(轉用) 허가면적, 즉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된 면적은 14만627ha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농지 면적 156만4,797ha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연도별 농지 전용 면적은 증가 추세로 2011년 1만3,329ha에서 2020년에는 1만7,429ha로 늘었다. 지난해에만 축구장 2만4,900여 개 넓이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는 주요 이유는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6,097ha) △주거시설 (2,392ha) △광·공업 시설(2,335ha) △관광, 유통, 숙박시설 등 기타시설 전환(5,942ha) 등을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지난 10년간 경기(2만9,685ha)에서 가장 많은 농지가 사라졌고, 이어 경남(1만6,701ha), 충북(1만6,190ha), 경북(1만5,976ha), 충남(1만5,525ha) 순이었다. 반대로 비농지에서 농지로 전환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최근 10년간 새로 생긴 농지 면적은 2,569ha 같은 기간 사라진 농지의 약 1.8%에 불과하다.

- 식량자급률 46% 그쳐

급격한 농지 감소는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국내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식량자급률은 2011년 45.2%였다가 2015년 50%대(50.2%)를 회복했다.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5.8%까지 떨어졌다. 식량 중에서도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의 자급 정도를 추린 곡물

자급률은 지난해 20.2%에 머물렀다.

맹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한 좋은 땅은 농지법상 예외 조항을 통해 다른 용도로 쉽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함) 원칙하에 농지법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1. 10. 5. 한국일보 기사내용 인용

□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2020년 12월 1일 현재, 농림어가는 118만5천 가구로 2015년 대비 4.2% 감소, 농림어가 인구는 265만1천 명으로 2015년 대비 9.3% 감소

- 우리나라 농림어가는 118만5천 가구로 2015년 123만7천 가구에 비해 5만2천 가구(-4.2%) 감소
 - ▷ 농가 103만5천 가구, 어가 4만6천 가구(해수면 4만3천, 내수면 3천), 임가 10만3천 가구임
-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는 265만1천 명으로 2015년 292만3천 명에 비해 27만2천 명(-9.3%) 감소
 - ▷ 농가 231만4천 명, 어가 10만4천 명(해수면 9만7천, 내수면 7천), 임가 23만3천 명
- 농가의 총 경지면적은 112만ha로 2015년 131만ha 대비 19만4천ha(-14.8%) 감소
 - 농가당 경지면적은 1.08ha로 10.0% 감소
 - * 농가당 경지면적 : 1.20ha('15) → 1.08ha('20)
 -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는 7.2%p 증가, 5.0ha 이상 농가의 비율은 0.4%p 감소함
- 농가의 경영형태는 논벼(39.6%), 과수(16.3%), 채소·산나물(16.3%), 식량작물(1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가비율은 2015년에 비해 논벼 2.1%p, 채소·산나물 1.9%p, 축산 0.7%p 감소
 - 식량작물은 0.8%p, 과수는 0.5%p 증가
 - * 식량작물 : 서류, 두류, 잡곡 등 일반 밭작물

※ 2021. 9. 28. 통계청 보도자료

□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쌀 예상생산량은 382만 7천톤으로 전년의 350만 7천톤 대비 9.1% 증가
 - 쌀 생산량(현백률 92.9%): (' 20) 3,507천톤 → (' 21) 3,827천톤(9.1% ↑)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 20) 3,412천톤 → (' 21) 3,724천톤
 -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8.2%)로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2만톤 증가(9.1%)
- 예상



식량과 비료 -2021년 10월호-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현황 >

	'15	'16	'17	'18	'19	'20	'21	전년비(%)
재배면적(천ha)	799	779	755	738	730	726	732	0.8
10a당 생산량(kg)	542	539	527	524	513	483	522	8.2
총 생산량(만톤)	433	420	397	387	374	351	383	9.1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전년의 72만 6,432ha 보다 0.8% 증가

- 최근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벼 재배면적 증가

※ 2021. 10. 8. 통계청 보도자료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10.14.), '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

○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 2021. 10. 14. 농식품부 보도자료

□ 실용화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지난 5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지난 5월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개호 의원은 당시 실용화재단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해 “실용화재단이 그간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 등으로 오인받고 있다”면서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자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해 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기관명칭 변경은 그간 재단 내에서도 원하던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것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정식 명칭 변경을 내년 2월 경으로 예상하고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변화하는 실용화재단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 10. 6.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8월말	'21년 8월말
생 산 량	2,332	2,319	2,142	1,493	1,680
출 하 량	2,216	2,218	2,054	1,531	1,675

※ 협회 7개 회원사 기준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0년 9월말	'21년 9월말
요 소	304	313	289	296	522
D A P	421	380	326	348	-
염화칼륨	319	350	296	266	390
환 율 (매매기준율)	1,100.30	1,165.65	1,180.27	1,178.80	1,169.54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종전 화학비료를 무기질비료로 명칭을 바꾼 이유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한 물질을 총칭하며, 주로 요소, 복합비료, 원예용 비료 등 무기 형태의 비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는 작물 생육증진 및 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무기질비료의 원료는 공기, 광석 등 천연재료로 이를 채취 및 가공하여 질소, 인, 칼륨 등의 식물 필수양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무기질비료는 양분 조절이 쉽고 시비가 편리하기 때문에 과잉시비가 아닌 적정시비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나 식물이 흡수하는 영양소는 무기 형태인 이온으로서 양쪽 다 동일합니다. 과거 공기나 자연광석 등 무기질 원료를 이용하여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비료가 공급되면서 화학비료라는 명칭이 임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 장려되면서 관행농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화학비료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나 안전성 등에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 등을 줄 수 있어 명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학비료란 명칭이 비료관리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1980년에도 비료관리법에서 보통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농협 등에서는 무기질비료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촌진흥청 토양비료 용어사전(2012. 12 발간)에 무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기화합물로 구성된 비료의 총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의 법상, 개념상 구분과 화학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 : 2021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한아름특호
- 성분량 : 12-10-(9)+3+0.2
- 특성 및 효과
 - 황산가리 함유로 당도, 과색 등 향상
 - 과수작물 및 원예작물에 알맞게 설계
 - 고토, 붕소를 다량 함유하여 토양내 미량요소 공급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가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주)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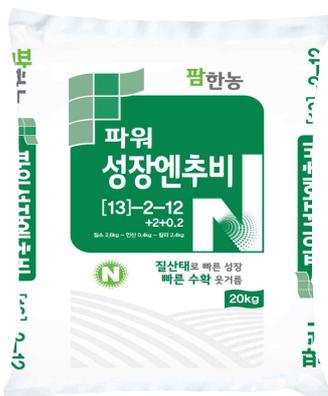
- 제품명 : 더존
- 성분량 : 13-6-(8)+2+0.2 (치요다 함유)
- 특성 및 효과
 - 치요다가 함유되어 작물체 내 흡수와 이동/효과 발현이 빠르고 저온에서도 흡수율이 높음
 - 치요다와 2중복비의 상승작용으로 생육 초/중기의 균형적 양분 공급이 가능
 - 황산칼륨(유황) 함유로 농작물의 품질 및 저장성을 높여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좋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 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주)팜한농



- 제품명 : 파워성장엔추비
- 성분량 : [13]-2-12+2+0.2
- 특성 및 효과
 - 국내최초, 국내기술로 개발된 질산태 함유 비료
 - 양분 흡수이용률이 뛰어나 웃거름 시비시 농산물의 조기수확 및 수확량 증대에 효과가 우수
 - 질산태질소는 칼슘, 고토, 칼리, 아연, 철 등의 양소 흡수를 좋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

□ (주)풍농



- 제품명 : 뿌리왕왕
- 성분량 : 13-8-(9), 고토1, 붕소0.2, 질산태질소, 황산칼륨, 유허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 질산태(초산태)질소와 암모늄태질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질소와 가용성인산, 황산칼륨, 유허 함유의 효과빠른 기능성 밑거름비료
 - 질산태질소 함유로 흡수효과가 빠르며 초기 생육을 왕성히 하며,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함유로 결핍증을 예방
 - 황산칼륨과 다량의 유허함유로 원예·과수작물의 맛, 당도, 매끄러움을 좋게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보리,밀비료
- 성분량 : 21-15-5+1+0.1(규산, 칼슘, 망간,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보리,밀에 가장 알맞게 영양분이 함유
 - 냉해를 방지, 월동률을 높여 증수효과가 매우 큼
 - 각종 병해에 대한 저항력 향상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21
- 성분량 : 21-7-7+2+0.2(측조시비 가능)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허, 석회, 규산 등의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매우 좋음
 - 저인산비료로 이끼나 괴불 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2020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식량과 비료

-2021년 10월호-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